

# 불 속에서 제련되는 강철과 같이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2026년 병오년(丙午年)은 육십갑자의 43번째 해로, 천간의 '병(丙)'은 강한 '양'의 불(陽火)'로써 적색(赤色)을 상징하고 지지의 '오(午)'는 동물 중 활발하고 기세가 좋은 말(馬)을 뜻한다. 그러므로 2026년은 뜨거운 태양 아래 질주하는 '붉은 말', 즉 '적토마(赤兎馬)'의 해라고 할 수 있겠다.

적토마(赤兎馬)는 삼국지의 관우가 탔던 전설적인 명마로,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기개와 용맹함을 상징한다. 2026년은 이러한 적토마의 기운처럼 빠른 변화와 강력한 돌파력이 사회 전반을 지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리학적으로 병오(丙午)는 강한 '양인(羊刃)'의 기운을 가진다. 이는 칼을 든 장수와 같아, 결단력이 대단하지만 자칫하면 충돌이나 사고의 위험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인(羊刃)이란 양인살(羊刃殺)의 줄임말이다. 동양 사상에서는 무엇이든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본다. 양인살(羊刃殺)은 물(物)이 극(極)에 이르면 약기(弱氣)를 발현한다는 논리에서 나온 살(殺)을 의미한다.

양은 신수(神獸)인데 뿔로 대상물을 들어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양의 속성은 순한 것 같지만, 목표를 정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돌진한다. 긍정적으로 보면 성공을 향한 집념과 열정 그리고 목표 달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표 달성



병오년 2026년을 기점으로 지구촌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와 행복찬 영성 시대를 연다

을 위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에 관성(官星)과 재성(財星)을 합리적으로 포용하여 모두가 상생하는 길을 열어나아가야 하겠다.

중국 진나라 풍수 대가 관박(郭璞)에서 시작된 현공풍수(玄空風水)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43년까지 20년 동안 9운(九運)으로 화(火)의 기운이 강하다고 한다. 9운(九運)리화(離火)는 동양 명리학에서 '9운(九運)'과 '리화(離火)'가 결합된 개념으로, 2026년(병오년)에 해당하는 강한 불의 기운과 변화의 시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2026년 병오년, 화(火)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전기, 전자, 첨단 기술을 상징하며 IT·에너지·반도체의 비상(飛上)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K-POP, 드라마, 웹툰, 뷰티 등 K-컬처

역시 2026년에도 계속해서 세계적 영향력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불기운이 강하면 참을성이 저하되고 갈등 노출과 감정 격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물(水)의 지혜와 토(土)의 안정감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일의 추진에 있어서 지나친 과속보다 지속 가능한 속도 조절과 꾸준한 리듬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물(物)이 극(極)에 이르면 약기(弱氣)를 발현하는 시기임으로 인공 지능과 같은 물질문명이 극에 달할수록 인간 내면의 정화를 위한 의지와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6년은 불 속에서 제련되는 강철과 같이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병오년과 관련된 예언이 격암유록에 나온다. 격암유록 궁을론에는 옷놀이에 빗대어 말한 《단동치기(檀東致基) 오묘일결(五卯一乞)》이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풀이하면 을묘(乙卯) 정묘(丁卯) 기묘(己卯) 신묘(辛卯) 계묘(癸卯, 2023년)로 오묘(五卯)가 되고 마지막에 결(乞=❶+❷+❸)이면 옷팔 녀동이 단동으로 뭉쳐서 한 번에 옷팔이 끝나듯 계묘에서 ❶갑진(2024년)+❷을사(2025년)+❸병오(2026년)로 판이 끝나는 것이다.

격암유록에서 병오년 전후는 낡은 것을 버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기이다. 병오년을 기점으로 인류를 괴롭히던 원인 모를 병(疾病)이 물러가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정화된 사람들이 살아남아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것이다. 2026년 이후에는 해인(海印)의 능력으로 물질 중심의 문명이 저물고, 정신과 물질이 하나로 합쳐지는 영성 문명이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기대해본다.

병오년(2026년)과 정미년(2027년)은 “오미(戊未) 시대”로, 이때 깨어있는 인재들이 구원받고 즐거워질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격암유록의 예언은 시대 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예언의 실현 여부는 확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隨時多變(수시다변)되오리니 絶對預定(절대예정)될 수 없네”라고 말중운(末中運)에 명시되어 있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6]

“12 월 25 일은 5,000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메시아 날”

5,000년 전부터 지켜오던 메시아 절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오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월 25 일만 되면 메시아절로 지켜왔던 것을 우리 승리제단에서 지키는 것은 진짜 메시아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지구 땅 위에서 5,000년 전부터 지켜왔던 메시아절을 이어받아서 지키고 있는 단체는 우리 승리제단 밖에는 없습니다. 5,000년 전부터 메시아절로 지켜오

던 그 절기를 누가 탄생한 날로 고쳐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메시아를 모셔야 메시아의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세주요, 구세주는 바로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인고로 내가 변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되어야 메시아가 왔다는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7]

“이슬성신이 내리면 그때가 말세다”

성경에 이슬성신을 부여주는 자가 구세주라고 쓰여 있다. 호세아서 14 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라고 한 것은 이슬을 부여주는 자가 구세주이고 백합화라는 것이다.

구주는 산곡의 백합이라고 찬송가는 항상 부르면서 이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성신을 부여주는 자가 구세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성신은 아무 때나 내리는 것이 아니요 말세에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부여주시리니 땅에서 징조가 일어나는데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고 했다. 구세주는 말세를 이루는 자인고로 이슬성신이 내리면 그때가 바로 말세인 것이다.\*

이기는 삶

## 물처럼 현명하게

\* 물이 갖는 칠덕(七德)  
첫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謙遜)”  
둘째,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智慧)”  
셋째,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包容力)”  
넷째,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融通性)”  
다섯째, 바위도 뚫는 “인내(忍耐)와 끈기”  
여섯째, 장엄한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勇氣)”  
일곱째,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大義)”

좋아하고 일에는 능숙함을 좋아하니 늘 때를 맞추어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직 서로 다투지 않으니 허물도 없느니라.

노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상의 방법은 물처럼 사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흐르는 물은 유연하다. 물은 네모진 곳에 담으면 네모진 모양이 되고 세모진 그릇에 담으면 세모진 모양이 된다. 이처럼 물은 어느 상황에서나 본질을 변하지 않으면서 순응한다.

물은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물은 평상시에는 골인진 곳을 따라 흐르며 버 이삭을 키우고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풀어준다. 그러나 한번 용트림하면 바위를 부수고 산을 무너뜨린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물이 마침내 도달하는 곳은 드넓은 바다이다.

사람도 이 물과 같이 모나지 않고 유연하게 다양한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정의 앞에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대처하며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현명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한 조직의 리더라면 응당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 이 책임지고, 옳은 결정은 직원의 공으로 돌리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조그만 공을 가지고 부하 직원과 다툼다면 어찌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완벽하고 조리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어



### ▲승리회보 제94호 1면 헤드라인 캡처

1987년 9월 5일 제4차 세계 전도 순방길에 오르신 이긴자 조희성님은 첫 도착지 미국 뉴욕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셨다. 그 당시 미국 뉴욕방송국 TKC(The Korean Channel)에서 조희성님은 “성경은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했다”라는 제목으로 2시간 분량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를 성공리에 마쳤고, 2시간에 해당하는 방송녹화분량을 30분씩 4회로 편성하여 1차로 1987년 9월 27일에 TV방영되었고 2차는 10월 4일에 방영되었고 3차는 10월 11일, 4차는 10월 18일에 연재로 방영되었다.

당시 방송국에서 있었던 이긴자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한다.

[해설] 여러분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신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면서 살아본 예가 없습니다. 단상에서 서면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염려하면서 단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항상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 입에 말씀을 담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 《관련 설교를 5면, 6면, 7면, 8면 전격 게재》

— TV방영 총4회 중 최후회분 영문번역 —

설교는 하지만 설교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방송국에 가서 방송할 때, 우리 교포들이 하는 방송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송국에 가서 방송하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를 쓴 기록을 가져오셨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껄껄 웃으면서 “나는 그러한 설교 대본을 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냥 단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면 말한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한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두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두 시간을 말하게 되어 있고 세 시간을 말하라고 하면 세 시간을 말하고 다섯 시간 말하라고 하면 다섯 시간도 말합니다.” 하나가, 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서 깜짝 놀래요. “유명한 이제 통일교 목사 문선명이도 설교 대본을 써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 또 조용기 목사도 역시 설교 대본을 가지고 와서 그 설교 대본을 읽는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된 것이지?” 나머지 목사라고 합니다. (2003. 6. 9)\*

